약보 식보 행보 그 위에 편식

(다니엘 1:1~21)

8.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0.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11.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14.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약보 식보 행보 그 위에 편식>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약보 식보 행보 그 위에 편식’
동의보감에 “약보보다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보란 약을 써서 몸을 보호하고 돕는 것이고, 식보는 음식을 통해서 몸의 원기를 유지하는 것이며, 행보는 걸음을 통해서 몸을 가꾸고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약보보다 식보가 낫다는 것은 약으로 건강을 지키려 하지 말고 음식을 골고루 먹음으로써 원기를 보충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보보다 행보가 낫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식이요법을 통해 몸에 원기를 보충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걷기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양제나 보충제를 통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정작 그보다 중요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여 음식을 가려 먹습니다. 또 식이요법을 통한 자기관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운동을 통해서 몸의 근육을 발달시키고 건강을 유지해갈 수 있습니

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말도 있고,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뜻의 와사보생(臥死步生)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한자로 바꾸어보자면 오사결생(汚死潔生)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더러우면 죽고 깨끗하면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목은 ‘약보 식보 행보 그 위에 편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편식은 물론 신앙적 의미입니다.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약보보다 식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식보보다 행보가 이루어져야하지만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만을 잘 먹고 늘 먹고 많이 먹는 극단적인 편식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반가워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놀고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무 일도 안하고도 삶에 불편이 없는 상황은 약이 오르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놀고먹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먹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먹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다만 단 한 가지를 먹어야 합니다.
유명한 김치 제조업체에서 김치총괄감독을 하시는 박사님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내 직업은 김치를 먹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김치 맛을 보고 좋은 김치와 맛있는 김치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을 직업으로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5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종교적 연관성 안에서 구원에 대한 비유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먹고 마심은 신앙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실질적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 변호사인 교인이라면 실제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직업이고 변호사 일은 부업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부터 당신의 직업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라고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또 “이것은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직업으로 여기는 일은 이제 당신이 아닌 하나님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전업주부는 가정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직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마음으로 예수님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 47~48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입으로 떡을 먹듯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의 직업은 예수님 한 분을 먹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직업들은 이제 하나님의 과제가 됩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만을 먹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BC.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을 때에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주로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성전 기물을 약탈하여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벨이라고도 불리는 마르둑의 신전에 바칩니다. 이렇게 잡혀온 귀족들 중에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벨드사살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속국들의 영재들을 뽑아서 바벨론 문화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신과 문화를 확장시켜서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발탁되어 왕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 대한 호감을 갖도록 왕이 먹는 음식이 제공되었고 영재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왕의 호의를 거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들을 감독하던 환관장이 겁을 먹습니다. 왕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에 대해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이 음식들이 율법의 규정을 벗어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채식을 요청했다고 해서 채식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보면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을 드리게 되면 그 제사물의 일부를 자신이 먹게 됩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어린양의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식생활은 유대사회와 전혀 달랐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이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었고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즐겼을 것입니다. 또한 왕궁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음식이 마르둑 신전에 바쳐진 우상 제물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음식 먹는 것을 스스로를 더럽

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전에 바쳐지지 않는 채식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열흘 후에 이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유지해야만 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될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야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각 나라와 민족들이 믿는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자기들 나라의 신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긴 것과 같았습니다. 포로였던 유다 사람들로써는 마음을 결정하기가 어려웠으리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힌 것인지, 아니면 근동지방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보편적인 종교관에 입각한 신관을 염두에 두면서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로 잡힌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시대적 상황으로는 하나님이 마르둑 신에게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역사에서 다윗과 몇몇 선한 왕들을 제외하고는 외국의 신들을 수입해서 우상숭배가 그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족의 신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풍요와 다산을 놓칠 수 있다고 여겼기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남신과 여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는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에 특화된 신으로써 삶에 보다 밀접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신관이 편만하던 시대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결단은 정말 의외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한 약한 신으로 여겨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자 왕의 음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이 각국의 청년들을 모아 왕의 음식을 제공한 것은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과 학문을 주입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의도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왕이 가까이 둘 영재로써의 자격을 포기하고 죽어 마땅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깨끗함을 추구한 이유는 스스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하나님은 마르둑 신에게 패배하였고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도 주지 못할 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놓인 처지만을 보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러한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민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첫 단계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시고 허리는 창에 찔리셨으며 온 몸에 채찍을 맞아 살갗이 갈기갈기 찢어진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담았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돈을 생각하면 마음으로 돈을 먹는 것입니다. 자녀를 생각하면 마음으로 자녀를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음을 통하여 마음은 깨끗해지거나 더러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어렵고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이 생각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덧붙일 여지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기능으로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이유는 마음으로 땅의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고 판단하는 동안에 마음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과 나를 동일시함을 통해 나의 죽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금 돈 생각을 하는 동안 마음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내가 지금 마음으로 자녀를 먹었기 때문에 더러워져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기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 어디서든지 이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입니다. 이 지독한 편식을 지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약보 위에 식보가 있고, 식보 위에 행보가 있으며, 행보 위에 예수님만 먹는 편식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편식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채식은 단순히 육식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깨끗한 음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나의 마음이 깨끗하게 지켜진다면 그 결과는 삶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됨으로 인해 삶 전체가 온전함 가운데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상태는 마음이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먹은 채식이 상징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실제로 왕이 주는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몸은 전혀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당시의 종교관과 신관에 입각해서 볼 때에 그리고 다니엘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에 이 결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에 생활전반에서 아름답고 윤택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를 지속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외의 것을 먹을 때에 우리 마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설령 가족이라고 해도 마음에 담기에 합당한 대상은 아닙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 뜻이 발산되는 곳일 뿐, 세상의 무엇인가를 담고 받아들여서 반응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반응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나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마음에 세상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먹는 동안 마음은 더러워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곧 마음으로 땅의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생각함을 통해 마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삶 전반에 걸쳐서 윤택함과 아름다움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본문 20절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무엇일까요?

지혜와 총명이란 곧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눈앞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해 판단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나의 지정의 즉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는 것들을 움직여가시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지혜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함을 통해 세상의 온갖 대상을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밥을 골고루 먹어서 육신을 건강하게 하듯이, 마음에도 온갖 대상을 담고자 하는 것은 얼핏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래 마음은 결코 세상을 담기 위한 용도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마음은 본래 용도대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합

니다.
직장에서 과장으로써 해야 할 일을 마음에 담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과장으로서의 일을 마음에 담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이 나의 지정의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마지막 구절인 21절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발탁이 되어 바벨론의 세 번째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의 잔치석상에서 벽에 나타난 글씨를 해석함을 통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이후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는 메대 왕 다리오 때에는 다니엘이 첫째 자리의 총리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는 도중에 승승장구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0절에서 보았듯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십 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유명한 박수와 술객들보다도 지혜와 총명이 훨씬 뛰어났으므로 왕의 정책과 통치에 다니엘의 영향력이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군대로 남 왕국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신 마음으로 바벨론을 정복한 셈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한 일이라고는 깨끗함을 유지한 것뿐이었습니다. 다만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승리에 동참하기 위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음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실감한다면 돈이 없으면 없을 뿐이지 두려워할 이유는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 포로로 잡힌 상태를 벗어나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지독한 편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도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에게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생각해서 더러워졌기에 나를 대신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꾸 이 세상을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더러움이 죄인 줄 알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편식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삶은 약보와 식보와 행보를 넘

어선 편식으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무슨 일을 대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마주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던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편식함에 기가 막히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지독스러운 편식을 통해서 세상만사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는 편식장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제 남은 삶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만을 먹는 왕초 편식장이가 되게 하심으로써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